불자 세상보기

불교의 윤달은 복짓는 달

활안 스님
금강선원장

"윤달은 무탈한 달
서슴없이 이웃 돕는 기간
나보다 남먼저 살피자"

윤달(潤月)은 천문학에서 연유된 언어이다. 달력에 기록한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년에 한번 씩 들어있는 달이다. 공짜로 들어있는 달이기 때문에 공달(空月) 여벌달 덤달 혹은 유독히 드러나 빛나는 달이라 하여 윤달(潤月)이라 부르기로 한다.

흔히 윤달은 손이 없는 달, 즉 다른 달과는 달리 탈이 없는 달, 나쁜 것에 걸릴 것이 없는 달이라고 해서 집수리 · 이사를 하거나 조상의 산소를 고치거나 묘를 이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윤달에 했고, 어른이 있는 집에서는 윤달수의라 하며 윤달에 수의를 장만하는 풍습이 있었다.

2012년 올해에는 윤달이 3월에 들어 있어 '윤삼월(潤三月)'이라 부른다. 금년 용해(壬辰年)를 오행으로 볼 때는 검정용(黑龍)에 해당해 '흑룡의 해'라고 부른다.

임진년인 1592년 일본인들이 침략해 와서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고 했다. 그보다 앞서 고려때에도 몽골군이 임진년에 침입해 강화도로 피난을 해야 했던 해이기에 임진년은 거국적으로 꺼리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래 윤달이 든 해는 한겨울과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산역(山役)을 중심으로 묘지 수리를 많이 했다. 수리(水利) · 성가(成家) · 중창(重創) 등 일도 많이 했다. 다만 굴왕성이 든 해만큼은 절에서는 불사(佛事)를 삼갔다.

윤달은 가욋달로서 실제로는 없는 달, 없는 날이다. 무슨 일이든지 부정을 타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흑룡의 해라 해서 건축 · 수리 · 개업 · 결혼 · 개수 · 묘장까지도 꺼리는 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임진왜란처럼 왜란이 있을 리도 없고 고려 때처럼 몽고군이 쳐들어 올 염려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한미 · 한EU간 FTA를 통한 경제적인 침략이나 남북관계에 조심하면 될 것이다.

또, 기후 풍토 등으로 때문에 한냉 · 풍토병이 유행할 염려가 있지만 이 또한 미리 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원래 불교에서는 공달에는 좋은 일을 하는 달이라고 했다. 때문에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조선(祖先)과 스승들에 대해 미진했던 일을 완성하는 해로 여겼다. 특히 무명에 가리워진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 대장경 불사를 하는 경우가 잦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경읽기 · 사경 · 백고좌법회 · 연등법회 등은 주로 윤달에 봉행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윤달에는 예수재 · 수륙재 · 영산재 등 불공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복을 함께 빌어주고 무주고혼들을 천도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불자들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부모 · 형제 · 자매가 되는 복지불사를 널리 행해왔다.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장학금을 줬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지어주기도 했다. 병든 사람들에게는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 다니는 절이나 사찰, 암자 등이 헐고 부서진 것이 있었으면 눈여겨 두었다가 윤달을 맞아 그것을 수리하고 새로운 불상 · 불화를 조성해 포교전법을 실천했다.

마을사람끼리 3년 동안 모은 좀드리쌀로 동네 다리를 놓거나 상여를 만드는 풍습도 있었다. 이는 마지막 길 떠나는 사람들을 복되게 전송하자는 취지로 이것이 생여계 · 굴둑계 · 다리계 등이다.

윤달은 세상의 고통을 줄여주고 중생에게 열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바람만 불면 날아다니는 중생들에게 성현의 가르침을 맛보게 하여 사회적으로 윤리도덕을 실천했던 해이다.

냇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등 철렵을 즐기고 방종을 일삼았던 사람들도 윤달만큼은 방생을 하고 정진에 힘썼다. 가난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자신의 댕기를 팔아 불사에 보탬이 되고자 힘쓰며 복을 지었던 것이 윤달이었다.

불자들 각자 임진년 윤삼월을 맞아 빈 달이 윤달이 되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길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조화로운 삶의 과보

이 평 래
충남대 명예교수

"이상세계 제시해 준 종교
피 · 땀 등 노력 있어야 구현
인류 함께 행복 · 평화롭길"

인간은 모두 현실세계에서 살지만 이상세계를 동경한다. 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를 하는 사람, 경제를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 등, 무엇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데 이상세계를 가장 잘 제시한 것은 무엇일까. 종교일 것이다.

어느 종교이든 그 종교가 제시한 이상세계를 들여다보면 행복과 평화가 가득 차있다.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종교라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믿는 종교적 삶만이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과연 어디가 이상세계이며,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해법이 천태만상이다. 우주는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이다. 이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불교의 해법이다. 아주 명쾌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한 우주에서 살고 있다. 공중을 나는 새들조차도 이 우주를 벗어나서 다른 우주로 갈 수 없다. 또 다른 우주는 없기 때문이다. 사후의 영혼이 가는 천국을 아무리 찬송하고 찬양해도 그것은 허구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상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의 피와 땀에 의한 정신적?육체적 노력의 결정이다. 그런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선 먹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모두 다 그렇다. 그 방식이야 어떠하든,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은 예외일 수 없다. 아무리 고고하고 고매한 수행자라도 먹지 않고서는 도를 닦을 수 없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한다. 일은 마음만 먹어서는 안되고, 몸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몸과 말과 마음, 이 세 가지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일이 제대로 풀린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혼자서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한 노력도 모든 인류가 함께 살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의 귀결이다. 결국 이상세계의 실현도 인류의 공동 작업일수 밖에 없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태어나자마자 들숨을 쉬기 시작하여 죽을 때 날숨을 마지막으로 목숨을 거둔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맑은 공기 속의 산소뿐이다. 맑은 공기는 우리 몸에 저절로 들어올 수 없다. 허파를 빌려야 한다. 그렇지만 허파 자체는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없다. 횡격막이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가슴을 열고 닫아주어야 한다. 이때 허파에서 들숨과 날숨이 가스교환을 하여 우리 몸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한다.

들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보통 0.03% 섞여있지만, 날숨에는 3%나 섞여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산소이지 이산화탄소가 아니다. 이산화탄소를 거의 다 배출시키기 위하여 날숨을 서서히 길게 내쉬는 것이다. 그래서 Yoga에서는 입식단(入息短)?출식장(出息長)---들숨은 짧게 쉬고 날숨은 길게 쉰다---의 호흡법을 철저하게 가르친다. 맑은 공기가 허파 속에 들어와도, 허파는 공기를 온몸으로 나를 힘이 없다. 온몸으로 나르는 일은 피가 한다. 그런데 피도 또한 제 힘으로는 온몸을 순환할 수 없다, 피를 순환하게 하는 것은 심장의 펌프질이다.

심장은 커다랗게 우심방?우심실, 좌심방?좌심실의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심장의 좌심실뿐이다. 좌심실의 판막은 태어나서 죽을 때가지 펌프질을 한다. 펌프질을 멈추면 사람은 죽는다. 펌프질을 갑자기 멈춘 것을 심장마비라고 한다. 우심방?우심실은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흐리고 탁한 피의 집결지이고, 좌심방?좌심실은 온몸으로 나갈 맑고 깨끗한 피의 배포장이다.

이렇게 하여 피의 적혈구는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산소를 운반해서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도록 한다. 숨을 쉬는 것도 이와 같이 여러 기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기관 하나라도 자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다.

우리가 동경하고 그리는 이상세계도 그렇다. 모든 인류가 함께 발원하고 동참해야 행복과 평화의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

社說

새 종정스님의 법어 되새기자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가 3월 28일 추대됐다.

이날 종정스님은 법어를 통해 "참나 가운데 대안락과 평화가 있다"고 말했다. 종정스님은 "마음의 가지가지 갈등과 잡념을 없애고 진리에 이르는 지름길은 참선"이라며 '참나'를 찾는 방법도 일러줬다.

"온 세계가 한 집이요, 만 가지 형상이 나와 둘이 아니다"라는 법어를 통해서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가르침을 전했다.

종정스님은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통 받는 이웃과 중생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며 병들고 가난한 이를 내 몸 같이 사랑하고 보살피자"는 말로 대신했다.

남북이 분단된 공업(共業)은 비폭력을 통해 풀 수 있다는 가르침도 있었다. "남북이 함께 비폭력 · 자비무적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대결구도가 허물어지고 남북동포가 하나돼 통일조국을 성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것이 그 예이다.

진제 종정스님은 대중 각자에게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라는 화두를 주며, 그 실천법으로 참선의 생활화를 제안했다. 수행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나눔도 강조됐다.

종정스님의 큰 가르침이 조계종 구성원을 비롯한 불자들의 실천으로 이어져 뭇생명이 편안해지길 기원한다.

공심(公心)이 종단 발전 이룬다

조계종 제189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 27~30일 열렸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 기대했던 선거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등이 통과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 중앙종회의 기능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3년 만에 개정될 줄 알았던 종헌부터 교구 · 비구스님 등 기득권 앞에 막혀 버린 것이 한 이유다. 또, 조계종이 앞장 서 민족문화말살 운운하던 정부의 새 도로명주소법 시행과 관련한 반대 결의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된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종회가 이렇게 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있다. 종헌이 부결될 때 보여준 의원스님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종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81명의 2/3인 54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표결 당시 56명이 재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격론이 오간 사안에 대해 표결을 강행한 것은 종회의원 스님들 다수가 종헌 개정에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 스님들은 수개월에 걸쳐 40여 차례 회의를 열고 종단발전을 위한 대안을 고심해 종헌 및 종법 제개정안들을 내놓았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종헌종법특위를 통해 상정됐다. 그러나 종회에서는 종헌을 제외한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종책질의에서도 집행부 각 부서마다 "이번 집행부는 법안발의를 않는다" "00부가 할 일이 그것인데 왜 않고 있느냐"는 질책이 잇따랐다.

기득권에 발목 잡힌 종회, "뭘대로 되겠지" 병이 만연한 집행부의 이런 행보가 계속되면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사찰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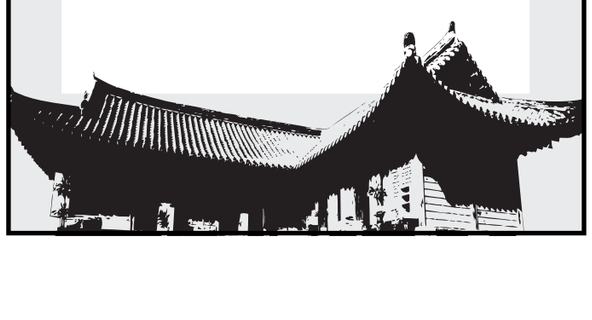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